



## 아~전남의 딸 나아름 '통한의 눈물'

사이클 포인트 레이스 결승서 아찔한 충돌 사고

승리 목전에 두고 서러운 패배… 금메달 꿈 무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사이클 여자 포인트 레이스 메달에 도전했던 나주출신의 나아름(20·나주시청)이 아찔한 충돌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

나아름은 16일 광저우대학타운 벨로드롬에서 벌어진 여자 20km(80바퀴) 포인트 레이스 결승에서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메달의 꿈을 접었다. 사고 충격에 정신까지 잃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나주미용고를 졸업한 나아름은 나주시청 소속으로 뛰고 있는 한국 사이클의 기대주. 언니 나희경도 사이클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을 시즌 세계트랙선수권 3km 개인추발 경기에서 한국 기록을 단축했던 나아름은 지난 10월 전국체전에서는 감기 몸살에도 불구하고 4관왕에 등극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와 메달권 진입을 기대해왔다. 그만큼 이날 경기의 아쉬움은 커다.

결승 첫 20바퀴에서 포인트를 따내지

못하며 중위권에 머물던 나아름은 세 번째 스프린트(10바퀴)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면서 단숨에 25포인트를 획득, 2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38바퀴째를 돌던 나아름은 바로 앞에서 달리던 홍콩 선수가 넘어지면서 바퀴를 부딪쳤다.

그 충격으로 트랙에서 굴러 떨어진 나아름은 뒤에서 달려온 중국 선수의 앞바퀴에 등이 밟혔다는 사고를 당했다.

나아름은 정신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코치진의 가슴을 힘들게 했다. 다행히 입안이 찢어지는 것 외에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경기를 끝내지 못한 아쉬움에 한동안 고치의 품에 안겨 흐느끼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인터넷을 통해 어린 딸의 사고 소식을 접한 부모님도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주명순(50·나주시 다시면)씨



16일 광저우대학타운 벨로드롬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 20km(80바퀴) 포인트 레이스 결승에서 선두권을 달리던 나아름은 경기도 중 경쟁 선수와 부딪혀 트랙에서 굴러 떨어졌다. 오른쪽 세번째 나아름

오늘의 하이라이트

## 태권도 금빛 발차기 돌입 남녀사격 또 금 명중 기대

한국 선수단 최고의 메달밭인 태권도가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 닷새째인 17일 금빛 발차기를 시작한다.

국가별 제한에 따라 태권도 전체 16체급 중 남녀 6체급 총 12체급에 참가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8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 종주국의 체면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때 남자가 5개, 여자가 4개 등 9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남자 54kg급에 나서는 김성호(용인대)와 74kg급의 장경훈(수성구청), 여자 46kg급에 출전하는 황미나(동아대), 62kg급의 노은실(경희대)은 색깔만 문제일 뿐 메달 사냥은 큰 문제가 없고 네 명 모두 시상대 맨 위에 서겠다는 각오다.

4년 전 도하에서 '노골드' 수모를 겪은 복싱은 남자 60kg급에 출전하는 한순철(서울시청)이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금빛 물살을 가른 박태환(단국대)은 자유형 100m에 출전한다.

사격은 남자 25m 스텐더드 권총과 10m 러닝타깃, 여자 50m 소총 3자세 등에서 다시 한번 금빛 파편을 노린다.

구기 종목도 금메달을 향한 진군을 계속한다.

대회 3연패를 노리는 남자 배구는 카자흐스탄과 B조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도하 아시안게임 때 종동세의 '원파 판정'에 희생돼 메달을 따지 못했던 남자 핸드볼은 당시 3-4위 전 패배를 안겼던 이란을 상대로 설욕을 노린다.

또 여자 하키는 '전통 강호' 인도와 맞붙고 남자 농구는 요르단과 조별리그 대결을 펼친다. 골프는 남녀 개인·단체 1회전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는 "인터넷으로 아름이의 사고를 알았겠는데 명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며 "바로 현지에 나가있는 양재환(나주시청) 감독과 통화를 해 큰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말이 힘들어할까봐 전화도 못하고 가슴을 졸였다"고 아

찔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오후 늦게야 딸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아름이가 오히려 괜찮다고, 아직 어려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위로를 해줘 한결 마음이 놓았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아름이가 아침을

털고 씩씩하게 돌아 올 것이다"고 말했다.

나아름은 안정을 취한 뒤 오는 21일 열리는 여자 도로독주 경기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중국 봉쇄하라… 양현종 준결승 선발



### 3연승 조 1위… 내일 오후 1시 4강 격돌

18일 오후 1시 광주 우아시안게임 야구 준결승전의 선발투수로 낙점된 한국 대표팀의 양현종(KIA)은 "선취점을 주지 않고 최대한 길게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범현 한국 감독은 16일 야자파 키스 탄을 17-0, 5회 콜드게임으로 제압한 뒤 "준결승에는 양현종은 염두에 두고 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투수들이 제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고 내일 경기엔

이 오늘 던진 투수들까지 나설 수 있는 만큼 준결승전에 총동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만(6-1 승), 홍콩(15-0 승)에 이어 파키스탄까지 가볍게 제친 한국은 3전 전승을 달리고 B조 1위로 준결승에 올라 18일 오후 1시 A조 2위인 중국과 결승 진출을 다룬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서 16승(7 패)을 거둬 류현진(한화)과 다음 공동 2

위에 오른 양현종은 성인 대표팀에는 처

음으로 뽑혔고 지난 14일 홍콩과 경기에서 10이닝을 던지고 출격 채비를 마쳤다.

국제경기 경험은 적지만 지난해 한국과 일본 월드컵에서 격돌한 한·일 월드컵에서 일본 일본 미우리 강타선을 상대로 장기인 위력적인 직구를 뿐 5위 3분의 2 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했다.

양현종은 "중국을 잘 모르지만 대표팀에서 오래 뛴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발빠른 선수들이 많다고 한다. 그보다도 타자와 승부가 중요한 만큼 이들을 아예 출루하지 못하도록 묶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지소연 해트트릭… 여자축구 4강 예약



'지소연' 지소연(19·한양여대)이 해트트릭을 기록한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광저우 아시안게임 4강 진출을 사실상 예약했다.

한국은 16일 중국 광저우대학 스포츠 단지 메인스타디움에서 열린 축구 여자 조별리그 A조 2차전 요르단과 경기에서 5-0으로 크게 이겼다. 14일 베트남을 6-1로 완파했던 한국은 이어 열리는 중국-

베트남의 경기에서 중국이 이기면 18일 중국과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4강 진출이 결정된다. 전반 4분 지소연의 선제골로 상쾌하게 경기를 시작한 한국은 32분 지소연이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보태며 점수 차를 벌렸다. 지소연은 후반 31분 한 골을 더 넣어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5 골 차 대승을 자축했다.

/연합뉴스

### 3연승 조 1위… 내일 오후 1시 4강 격돌

18일 오후 1시 광주 우아시안게임 야구 준결승전의 선발투수로 낙점된 한국 대표팀의 양현종(KIA)은 "선취점을 주지 않고 최대한 길게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범현 한국 감독은 16일 야자파 키스 탄을 17-0, 5회 콜드게임으로 제압한 뒤 "준결승에는 양현종은 염두에 두고 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투수들이 제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고 내일 경기엔

이 오늘 던진 투수들까지 나설 수 있는 만큼 준결승전에 총동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만(6-1 승), 홍콩(15-0 승)에 이어 파키스탄까지 가볍게 제친 한국은 3전 전승을 달리고 B조 1위로 준결승에 올라 18일 오후 1시 A조 2위인 중국과 결승 진출을 다룬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서 16승(7 패)을 거둬 류현진(한화)과 다음 공동 2

위에 오른 양현종은 성인 대표팀에는 처

음으로 뽑혔고 지난 14일 홍콩과 경기에서 10이닝을 던지고 출격 채비를 마쳤다.

국제경기 경험은 적지만 지난해 한국과 일본 월드컵에서 격돌한 한·일 월드컵에서 일본 일본 미우리 강타선을 상대로 장기인 위력적인 직구를 뿐 5위 3분의 2 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했다.

양현종은 "중국을 잘 모르지만 대표팀에서 오래 뛴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발빠른 선수들이 많다고 한다. 그보다도 타자와 승부가 중요한 만큼 이들을 아예 출루하지 못하도록 묶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이승엽 요미우리와 결별

이승엽(34)이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결별했다.

요미우리 구단과 같은 계열인 요미우리신문은 이승엽과 내야수 애드가 고살레스(32), 마무리 투수 마크 크론(37) 등 외국인 선수 3명과 재계약을 않는다고 16일 보도했다.

2004년 일본에 진출해 두 시즌을 지바 롯데에서 뛰고 2006년 요미우리 유니폼을 입은 이승엽은 입단 첫해부터 4번 타자로 홈런 41개와 108타점 퍼뜨리며 맹활약했다.

2006년 말 요미우리와 4년간 30억 엔에 장기 계약을 맺고 2007년에도 홈런 30개를 뛰어냈지만, 이후 점차 부진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2008년부터는 한 차례도 타율 0.250을 넘지 못했다.

올해는 1-2구을 오가면서 1군에서는 56경기에만 나와 5홈런 11타점, 타율 0.163의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은 선수를 기다려 주지 않는 성급한 태도로 이승엽의 자진심에 상처를 냈고, 요미우리의 쟁쟁한 스타 플레이어들과 경쟁 체제도 그를 지치게 했다. 급기야 이승엽은 올해 포스트시즌 도중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방출이 굳어졌다.

/연합뉴스

### 3연승 조 1위… 내일 오후 1시 4강 격돌

18일 오후 1시 광주 우아시안게임 야구 준결승전의 선발투수로 낙점된 한국 대표팀의 양현종(KIA)은 "선취점을 주지 않고 최대한 길게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범현 한국 감독은 16일 야자파 키스 탄을 17-0, 5회 콜드게임으로 제압한 뒤 "준결승에는 양현종은 염두에 두고 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투수들이 제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고 내일 경기엔

이 오늘 던진 투수들까지 나설 수 있는 만큼 준결승전에 총동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만(6-1 승), 홍콩(15-0 승)에 이어 파키스탄까지 가볍게 제친 한국은 3전 전승을 달리고 B조 1위로 준결승에 올라 18일 오후 1시 A조 2위인 중국과 결승 진출을 다룬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서 16승(7 패)을 거둬 류현진(한화)과 다음 공동 2

위에 오른 양현종은 성인 대표팀에는 처

음으로 뽑혔고 지난 14일 홍콩과 경기에서 10이닝을 던지고 출격 채비를 마쳤다.

국제경기 경험은 적지만 지난해 한국과 일본 월드컵에서 격돌한 한·일 월드컵에서 일본 일본 미우리 강타선을 상대로 장기인 위력적인 직구를 뿐 5위 3분의 2 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했다.

양현종은 "중국을 잘 모르지만 대표팀에서 오래 뛴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발빠른 선수들이 많다고 한다. 그보다도 타자와 승부가 중요한 만큼 이들을 아예 출루하지 못하도록 묶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정정 공고

2010년 11월 16일자 광주일보에 게재된 광주지법원 경매 276법원 경매부동산 매각광고의 '사법판매'와 '경매'를 "사법보좌관 김영복"으로 정정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본 회사는 2010년 11월 16일자 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일자에 의하여 주(반도산) 압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재개일 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리와 이에 공고하고 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유한회사 반도산 대표이사 유동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낙화리 602-22

대표이사 유동윤

010-8247-1001

010-8247-1001

010-8247-1001

010-8247-1001